



보도시점 2023. 12. 20.(수) 11:00
< 12.21.(목) 조간 >

배포 2023. 12. 20.(수)

청정수소 인증제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 열려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각국별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상호 공유 및 협력 논의

주요국 간 청정수소 교역을 활성화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이 12월 20일(수)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되었다.

* 청정수소 인증제 :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금번 포럼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의 수소 정책 담당 기관*과 수소 관련 기업, 학계 등 1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 아르곤렙, (EU) HINICIO, (독) H2Global, (일) 수소협회, (호) 주한호주대사관 등

금번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12월 18일(월))에서 발표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공유하였으며, 미국 아르곤연구소는 미국의 인증제 현황과 함께 자사 배출량 분석 모델(GREET)을 통한 수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설명하고, 유럽연합(EU) HINICIO와 독일 H2Global, 일본 수소협회, 주한호주대사관 등에서도 자국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공유하는 등 수소 교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포럼 환영사에서 “청정수소의 글로벌 교역은 세계 각국에 탄소중립 이행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강화, 청정에너지 생산·수출확대 등 다양한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 언급하며, “본격적인 수소 교역에 대비하여 인증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간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3950)
	수소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3953)

□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CHTI)*' 포럼' 개요**

* Clean Hydrogen Trade Initiative

- (목적) 국가별 수소 수급·인프라 정책,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제도 공유를 통해 주요국 간 청정수소 네트워크 구축 및 교역 활성화

* 제1회 포럼(22.9월, 킨텍스) : 수소교역 계획 등을 주제로 해외 9개 기관 포함 약 150여명 참여

- (일시/장소) '23. 12. 20(수) 오후 2시 / 잠실 롯데호텔 월드(사파이어 볼룸)

- (참석*) (국내)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H2KOREA 회장

(해외)주한덴마크대사 및 주요국(美·EU·日 등) 인증제 관련 기관

* 동 행사에 국내외 기업·기관 등 150명 이상 참석 예정

- (주제)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간 제도 공유 및 협력 논의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포럼 안내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4:05~14:10	(5')	■ 개회사	H2KOREA 회장
14:10~14:15	(5')	■ 환영사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14:15~14:20	(5')	■ 축사	주한덴마크대사
14:20~14:25	(5')	■ 기념사진 촬영	
발표세션 :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제 추진현황			
14:25~15:55	(90')	■ 기관별 발제(15'), 6개국 ① 한국 청정수소 인증제 ② 수소 생산 현재·미래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③ H2Global의 역할, 매커니즘 및 운영방식 ④ EU CertifHy 인증제도 ⑤ 호주 원산지 인증제도(GO Scheme) ⑥ 일본 청정수소 인증제 및 수소교역	(韓) H2KOREA (美) 아르곤연구소 (獨) H2Global (EU) HINICIO (濠) 주한호주대사관 (日) 일본수소협회
15:55~16:05	(10')	■ 휴식 및 장내정리(10')	
16:05~16:55	(50')	■ 패널토의(50')	
16:55~17:00	(5')	■ 폐회	사회자